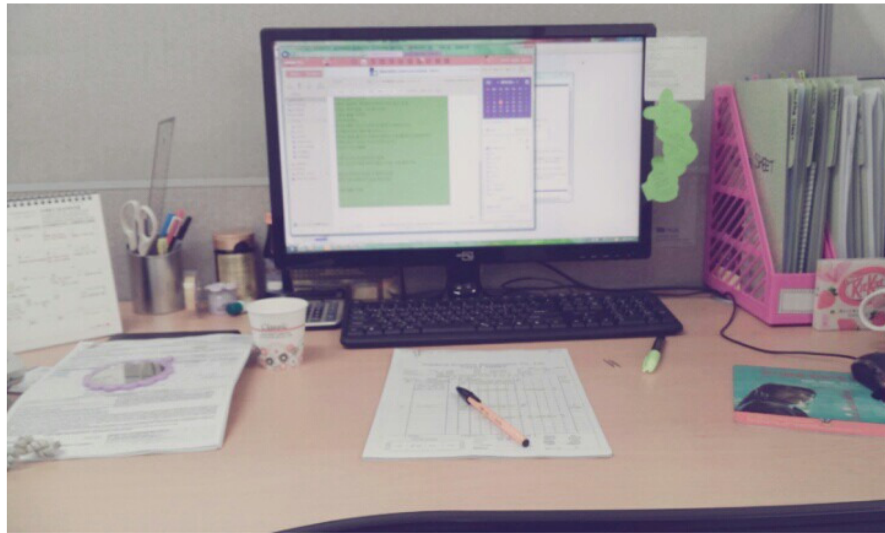


5월 12일의 기록



작년인가 제작년에도 이런 일기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1년이 흘렀나?

2013년 5월 12일의 나는 잔디밭에서 닭강정과 짬깨를 먹고, 친구들과 서울 여기저기를 기웃대는 철 없는 24살이자 취업을 걱정하며 무역 수업을 듣고, 토익 시험을 치러 다니고, 회화 수업을 들으며 아침 9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오는 찌리같은 현실을 슬퍼하던 질풍노도의 24살이었지만 다행히 2014년 5월 12일의 나는 5개월차 직장인이 되었다.

2015년 5월 12일의 나는 별다를 것 없는 1년 5개월차 직장인이겠지만 그땐 제발 남자친구도 사귀고, 뭔가 삶의 활력소같은 일이 벌어지길...

오늘은 진짜 피곤 피곤한 하루다.

주말동안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토요일에 현종이언니 결혼식이 있었고 끝나고 청년회 삼겹살 파티에서 고된 노동을 즐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좀 짜증이 나있는 상태였지

출근하자마자 일을 시작했다.

심지어 엄마한테 메일 한 줄 쓸 시간이 없어서 카톡을 보내봤다.

2014년 5월 11일, 드디어 우리 엄마는 카톡 유저가 되었다ㄹ

연휴가 끝나고서는 계속 이런 식이다.. 정말 퇴근할 때까지 일이 많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이런 식이니 진짜 미칠 지경이었다.

그와중에 사장님이 돌아왔다. 진짜 사장이는 좋겠다. 맘대로 휴가내고 해외에 막 갔다온다.

돈도 다 받겠지?

이래서 다들 사장이 되고 싶어 하는건가?

결재할게 산더미인데..... 사장이가 있어서 결재는 빨라서 좋았지만 바빠 죽겠는데 자꾸 나한테 운임이며

스케줄을 보내달라고 해서 미칠 지경이다. 난 겨우 5개월차인데... 내가 무슨 5년이나 일한 사람처럼 부려먹는다.

이래서 사장님 담당인 화주를 맡는 건 정말 별로다.

그런 화주가 몇 개 썩이나 되니 아주 죽을 맛.....

일이 너무 많아 수현씨가 옆에서 간단한 몇 가지를 도와주고서도 내가 해야할 일이 많아서

퇴근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에라이.. 내일 출근해서 하자' 싶어서 퇴근퇴근했음

집에 가서는 빵 세 봉지 폭풍 흡입 난 빵순이인가...

아 내일도 출근해서 할 일이 산더미라니ㅠ 정말 OMG

참! 수현씨, 효진씨, 정팀장님, 이팀장님, 정계장님은 오늘부로 승진했다.

수현씨랑 효진씨는 계장님이, 정팀장, 이팀장, 정계장님은 대리님이 되셨음

좋겠다. 나도 빨리 승진하고 싶다. 5년은 일해야 승진할 수 있겠지?

아직 5개월 밖에 안 된게 꿈도 크군

엄마가 자꾸 돈돈돈 하지 말라고 했는데 혼자 나와서 살면서 여기저기 돈 쓸 곳이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돈돈 하게 된다.

그래도 난 아직 동심이 살아 있는 아이란다.

버스에 눈알 스티커 붙인 타요버스가 뭐라고 볼 때마다 내 입에 엄마미소를 짓게 하냐말이다.

이 마성의 타요버스 같으니라고ㅋㅋㅋㅋ요즘 내 출퇴근길 유일한 낙이라면 낙이지

난 남자친구가 사귀고 싶다.

남자친구는 둘째치고 설남(설레는 남자)도 없다. 뭔가 그런 좋은 기분 있잖아

잘 보이고 싶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자꾸 생각나서 연락이라도 하면 행복하고

그런걸 느끼고 싶다고!!

내 시덥잖은 오래된 남자사람친구들 말고TTTTTTTT

진짜 동호회라도 하나 들어야 하나

맨날 동선이 회사-집-회사-집이니 누굴 만날 수가 없다.

소개팅을 하자니 그간 나를 괴롭혔던 소개팅남들이 떠오르고ㅋㅋㅋㅋ

2015년의 나는 연애하고 있을까?